2024-06-14

issue comment

Analyst 이동주 natelee@sks.co.kr / 3773-9026

SK증권 리서치센터

summary

- **미쯔이화학 EUV용 펠리클 2세대 개발 참여, 경쟁 강도 심화 우려로 국내 관련 업체 주가 하락**
- **이미 1세대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로 2세대 진입은 자연스러운 흐름. 오히려 시장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긍정적**
- **국내 업체(에프에스티, 에스앤에스텍) 역시 2세대 제품을 준비 중.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선두 주자의 위치**

EUV 펠리클 현황 점검 (feat. 에프에스티, 에스앤에스텍)

전일 국내 EUV 펠리클 관련 업체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 에프에스티 -8%, 에스앤에스텍 -3.7%
일본 미쯔이화학이 2025년 12월 공장 준공을 목표로 CNT 펠리클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센티먼트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1) 미쯔이화학은 작년 12월 벨기에 연구소인 IMEC과 2세대 카본 계열(CNT) 상용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이미 시장 진입을 시사한 바 있으며 2) 1세대 폴리실리콘 계열의 EUV 펠리클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세대 카본 계열로의 제품 진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경쟁 강도 심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1) EUV 펠리클이 여전히 미개척 시장임을 감안하면 일본 유명 소재 업체의 진입은 오히려 시장의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의미와 함께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2) 주요 제조사의 전공정 미세화도 진행 중이다. 3나노 캐파 확대, 2나노 양산 계획 등으로 High NA 장비에 대응하는 펠리클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미쯔이화학의 진입도 여기서의 기회 요인을 크게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고객사가 양산용에 본격 적용하고 싶어하는 제품은 2세대(카본 계열) 펠리클이다. 국내 업체인 에프에스티와 에스앤에스텍 역시 2세대 제품을 준비 중이다.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국내 업체는 선두 주자의 위치이다.

EUV용 펠리클 제조사별 현황 및 개발 로드맵

에프에스티	
	1.5세대 메탈 실리사이드 계열의 400와트 개발 중 2세대 카본 계열의 600와트 개발 중 / 투과율은 확보, 열적 및 기계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 EUV 전용 팹(동탄) 3Q24 준공 예정
에스앤에스텍	
	1.5세대 메탈 실리사이드 계열의 400와트 개발 완료 / 91% 투과율 + 열적 및 기계적 안정성 확보 2세대 카본 계열의 500와트, 600와트 펠리클 개발 중 EUV 전용 팹(용인) 올해 7-8월 준공 예정
미쯔이화학	
	1세대 폴리실리콘 계열 400와트, 83% 및 90.5% 투과율 개발 완료 / 글로벌 외판 점유율 100% 2023년 12월 IMEC과 2세대 카본 계열(CNT) 상용화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 2025월 12월 2세대 펠리클 생산 공장 준공 목표. 2027년까지 투과율 94% 이상, 600와트 이상(High NA) 출력 대응
TSMC	
	1세대 폴리실리콘 계열 400와트, 85% 투과율 개발 완료 / 자체 사용

자료 : 각 사, SK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관리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 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